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순항'

아시아나IDT 이어 에어부산 내달 상장...공모 희망가 3600~4000원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핵심자산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으로 차입금을 대폭 감축한 데 이어 자회사인 아시아나IDT와 에어부산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IDT는 지난 2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첫 거래가 이뤄졌다. 아시아나IDT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그룹의 IT분야 서비스를 전담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2603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62억원이

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IDT의 상장으로 23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유입(5122억원)과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한 현금 확보(5634억원)로 지난해 말 4조5700억원에 달하던 차입금을 지난 8월 3조1914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9월 말 차입금을 전월 대비 503억원 추가로 감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단기 차입금 비율은 5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의 또 다른 계열사인 에어

부산도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에어부산은 내달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지난 23일 공모 절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공모 희망가는 3600~40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187억~208억원이다. 다음달 13일부터 양일간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 후 같은 달 18일부터 19일까지 청약이 받는다. 내달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동대표 주권사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이다. 2007년 설립된 에어부산은 2008년에 첫

취항 후 올해 취항 1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496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5617억원)의 88%를 3분기 만에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다. 2015년부터 3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21.9%. 올해 3분기 기준 6.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두 회사의 상장으로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자본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부채비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 3분기 말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은 1조2032억원, 부채는 6조746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60.64%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2018년 Hyeombuzeum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Hyeombuzeum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현대차 'Hyeombuzeum 페스티벌' 개최

고객과 아이디어 소통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2018년 Hyeombuzeum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Hyeombuzeum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인 Hyeombuzeum 프로그램은 고객이 직접 제품과 마케팅, CSV(공유가치창조)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하고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현대차의 대표적 고객 소통 프로그램이다. Hyeombuzeum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의 고객들의 개선 제안을 공유하고 현대차가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이번 페스티벌에는 Hyeombuzeum 3기 95명과 1.2기로 활동했던 50여 명, 현대차 임직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10월 열린 Hyeombuzeum 개선 제안 발표회에서 우수한 제안으로 상품 혁신, 고객가치 혁신, 사회 혁신 부문에서 선정된 부문별 우수팀 2팀씩 총 6팀이 현대차에 대한 최종제안을 발표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이러한 현장 투표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팀으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콤팩트 맞춤형 실내 구축 방안(사회 혁신 부문) 등 3팀이 선정됐다. 또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진행된 '고객이 만드는 자동차' 벨로스터, i30 N 라인 커스텀 및 제안 발표 결과, 벨로스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 커스터마이징(맞춤화) 품목을 활용한 '벨런스업 에디션'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에 중점을 둔 i30 N 라인 '스포츠 에센스 에디션'이 각각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Hyeombuzeum들이 제안한 커스텀 및 모델은 실제로 상품 구성에 반영돼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또 Hyeombuzeum 멘토로 활동한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김정태 엠아이소셜컴퍼니 대표이사, 장동선 박사가 빅데이터와 디자인 사고, 뇌과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 이광국 부사장은 "올해 Hyeombuzeum 활동 기간 제안받은 18개의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aT, 한국 PR 대상 '최우수상' KATI 농식품 수출 정보 호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가 23일 '2018 한국 PR대상'에서 정부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KATI 농식품 수출정보는 aT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농가 및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를 위해 해외 농식품 시장 정보를 조사해 제공하는 홈페이지이다. 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전파와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난해부터 aT는 수출정보 전파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 이번 대상에서 농식품 분야의 수출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제고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신하 기자 goback@



푸빌라와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요.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층 문화광장에서 대형 트리를 전시하고 있다. 올해는 '푸빌라와 친구들'이라는 콘셉트로 트리 정면에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대형 인형을 설치했다. 푸빌라는 신세계가 지난해 기획부터 개발, 론칭까지 전과정을 직접 개발한 크리스마스 캐릭터다.



(주)스카이장례식장

062)951-1004(천사)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순용)는 지난 23일 목포 국제체육센터에서 열린 '신협 온(溫) 세상 나눔' 행사를 통해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펼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협두손모아봉사단'과 자원봉사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가 1억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전남도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희망을 전하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신협가치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김요안 신협 전남두손모아

이봉사단장(목포대성신협 전무)은 "신협 정신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신협이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할 계획"이라며 "신협의 김장 나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충영 신협 광주두손모아봉사단장(광주웨슬리신협 전무)은 "신협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마더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모범금융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행사 역시 단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봉사자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품격있는 시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차이
부담없는 장례비용!!
수원동 자동차 매매단지 입구
1,000여대 동시 주차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인식 개선 앞장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창작자와 기업인, 일반인들의 저작권 마인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으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면 전남 지역뿐 아니라 광주까지 어디든 찾아가간다. 교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법령 이해, 침해사례, 공정이용의 방법 등으로 구성된 전문교육을 통해 창작자와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저작권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총 18회 운영해 452명의 수료생이 교육을 이수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4.4점 이상을 달성하며 수요자들로 부터 큰 만족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센터는 또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4회째 개최한 올해 공모전은 저작권

보호와 침해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주제로 진행했다. 영상·음악과 미술 2개 부문으로 제한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00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영상·음악부문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장세현), 미술부문 '담았으니 계산해야지(오수빈)'이 각각 부문별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가 이끌고 있는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그동안 지역 기업과 예술인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일반도민들의 저작권 공평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콘텐츠가 권리를 지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2018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가 최근 개최한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 등 수상자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저작권 콘텐츠 공모전 등 개최

신협 광주전남본부,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순용)는 지난 23일 목포 국제체육센터에서 열린 '신협 온(溫) 세상 나눔' 행사를 통해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펼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협두손모아봉사단'과 자원봉사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가 1억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전남도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희망을 전하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신협가치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김요안 신협 전남두손모아

'외식기업 해외진출 워크숍' 농식품부·aT 28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박병호)는 오는 28일 서울 aT센터에서 '제3회 외식기업 해외진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예로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외식산업 정책 방향 소개, 해외진출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세미나로 구성됐다. 세미나는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어떻게 할 것인가', '베트남 현지 정착 방안 및 노하우' 등 해외진출의 시작단계부터 현지 시장 정책 방안까지 다뤄진다. 이신하 기자